

배급과 노동, 그리고 사회정의:

러시아 내전기(1918~1921년) 페트로그라드의 노동자와 배급*

류 한 수**

1. 머리말

사회 구성원들이 단순히 기존 체제에 큰 불만을 품는다고 반드시 혁명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예전에는 공상의 영역에만 있던 이상(理想)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반드시 실현하고자 말겠다는 의지 없이는 혁명은 일어날 수 없다. 러시아 혁명도 예외가 아니었다. 러시아 제국의 각종 모순과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압박 속에서 비틀거리던 차르 체제는 결국 1917년 2월에 허물어졌고 자유와 평등을 이룩하겠다는 의지와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품은 러시아의 노동계급은 10월혁명의 주체가 되었다. 볼셰비키(Большевики)는 프랑스 대혁명의 구호였지만 완전한 실현에는 실패했던 이상인 자유와 평등을 러시아에서 제대로 구현하고자 했다. 특히 평등이라는 이상은 비록 사회주의 이론을 알지 못할지라도 거의 생래적인 차원에서 불평등을 혐오해온 러시아 인민의 정서에 큰 호소력을 지녔고, 러시아 인민이 서방의 낯선 이념 체계인 마르크스주의를 비교적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 중요한 매개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른바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으로 러시아의 집권 세력이 된 볼셰비키는 새로운 체제를 안온한 상황에서 세우는 행운을 누리지 못했다. 혁명 8개월 뒤에 시작된 세 해 동안의 내전에서 반혁명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고 자본주의 열강의 경제 봉쇄에 시달린 혁명 러시아는 내내 심한 경제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특히, 러시아 혁명의 요람이었던 페트로그라드(Петроград)에서는 경제 붕괴가 극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볼셰비키 정부는 혁명의 발전이 아니라

* 이 논문은 상명대학교의 2012학년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과제 번호 2012-A000-0320).

**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생존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정부 당국은 경제 위기 타개책을 생산성 향상에서 찾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볼셰비키 지도부는 식량과 각종 생활필수품이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생계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물자의 분배를 생산성과 연계하는 전략을 서슴지 않고 구사했다. 이 과정에서 평등이라는 이상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볼셰비키 지도부로서는 불평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전략이 내전 상황에서 혁명의 수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지만, 평등을 위해 혁명을 일으켰던 노동자들에게 그 전략은 혁명 자체의 정당성에 회의를 품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듯 평등이라는 가치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가치는 충돌 노선을 달리는 듯했다.

평등 지향과 생산성 향상의 대립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례가 바로 내전 동안 배급을 둘러싼 볼셰비키 지도부와 노동 계급의 갈등과 대치였다. 특히 내전 중후반기에 배급 범주 차등의 정당성과 그 효과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를 통해 평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자리매김할지에 관한 볼셰비키 지도부와 일반 노동자 사이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러시아 내전기를 다룬 기존의 연구에서 배급 제도의 구조와 실행 형태에 관한 서술은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과정에서 지니는 의미와 의의는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주제에 관한 기존의 뛰어난 성과로는 미국의 역사학자 메리 매콜리(Mary McAuley)의 연구¹⁾가 있으나, 통찰력이 변독이는 그의 연구는 안타깝게도 러시아의 자료보존소가 러시아 국외의 역사학자들에게 개방되기 이전에 나온 터이라 가장 중요한 1차 사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서 비롯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매콜리의 연구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성격을 띤 이 글은 연구의 밀도를 높이고자 연구의 범위를 혁명의 요람이었으며 노동 계급의 본거지인 페트로그라드에 국한한다.

1) Mary McAuley(1989) "Bread without the Bourgeoisie," in D. Koenker, W. Rosenberg and R. Suny (eds.) *Party, State, and Society in the Russian Civil War: Explorations in Social Histo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pp. 158-79; Mary McAuley(1991) *Bread and Justice: State and Society in Revolutionary Petrograd 1917-1922*, Oxford: Clarendon Press, chapter XIV.

2. 경제 위기와 배급

시장에서 식료품과 그 밖의 다른 생활필수품의 값이 치솟고 화폐 가치가 폭락했으므로, 노동자의 명목 임금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실질임금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도저히 부양할 수 없을 만큼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화폐로 받는 임금으로는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내전기에 생계가 아닌 생존을 도모할 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의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 계급의 생존은 화폐 임금보다는 현물 임금, 즉 배급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달리 말해서, 식량과 식료품이나 의복과 신발 같은 생활필수품이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대가로 배급되었던 것이다.

<표 1> 1917~1922년 페트로그라드 노동자의 평균 월급(작업복과 공공요금 제외)

	화폐 임금	배급	총액(상품 루블)
1917년 상반기	34.7 (98.7%)	0.46 (1.3%)	35.16
1917년 하반기	17.5 (90.7%)	1.80 (9.3%)	19.30
1918년 상반기	4.55 (72.5%)	1.73 (27.5%)	6.28
1918년 하반기	2.80 (64.4%)	1.55 (35.6%)	4.35
1919년 상반기	1.62 (37.2%)	2.73 (62.8%)	4.35
1919년 하반기	1.01 (24.3%)	3.15 (75.7%)	4.16
1920년 1/4분기	0.51 (15.0%)	2.88 (85.0%)	3.39
1920년 2/4분기	0.48 (16.3%)	2.46 (83.7%)	2.94
1920년 3/4분기	0.48 (15.0%)	2.72 (85.0%)	3.20
1920년 4/4분기	0.50 (17.9%)	2.29 (82.1%)	2.79
1921년 1/4분기	0.26 (7.2%)	3.33 (92.8%)	3.59
1921년 2/4분기	0.28 (8.1%)	3.18 (91.9%)	3.46
1921년 3/4분기	1.00 (25.5%)	2.92 (74.5%)	3.92
1921년 4/4분기	3.38 (50.9%)	3.26 (49.1%)	6.64

출처: К. Н. Яковлева(сост.)(1923) *Положение труда в Петроградской губернии за 1918-1923 гг.: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атлас, пояснительный текст и цифровые материалы*, Петроград: Вопросы труда, С. 14; С. Струмилин(1923)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и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труда в рус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1913-1922 гг.*, М.: Вопросы труда, С. 22, 76.

<표 1>은 임금 총액에서 배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치솟았음을 잘 보여 준다. 1918년에는 전체 임금에서 화폐 임금의 비율이 배급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1919년에는 이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1919년 전반기에 배급이 임금의 62.8퍼센트를 차지했다. 1920년에는 배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올라서 80퍼센트를 넘어섰고, 내전이 끝날 무렵에는 마침내 90퍼센트를 웃돌았다. 1920년에 화폐 임금이 임금 전체의 15퍼센트 선까지 떨어지는 등 현실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자, 노동자의 관심은 배급에 쏠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내전기의 경제 위기 속에서 페트로그라드 노동자의 생존은 배급을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 있었다.

배급에는 등급이 있었고, 이 등급은 공장의 중요도와 작업의 특성과 노동자의 범주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 1919년에 육체노동자를 위한 이른바 “노동배급”이 도입되었다.²⁾ 이 밖에도 주요 산업체로 분류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특혜 배급이 주어졌고, 이 배급은 “장갑(裝甲)” 배급이라고도 불렸다. 처음에는 비교적 단순했던 배급의 범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복잡해졌다. 배급의 범주가 세분화되면서 1920년 초에 이르러서는 자그마치 25~30개에 이르렀다.³⁾ 배급에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이 생기고 이 차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다양한 노동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배급의 범주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장과 여러 노동자 조직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1919년 12월에 열린 제7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는 “대회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식료품의 불평등한 분배에 주의를 [...] 기울이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이 현상을 단일한 노동자 배급이라는 수단으로 종식해야 한다”는 선언이 들어갔다.⁴⁾ 1920년이 되자, 페트로그라드의 불

2) *Бюллетени отдела статистики труда при петроградском отделе труда и совет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юзов, 1920, № 12, С. 1.*

3) А. Я. Вышинский(1922) *Вопросы распределения и революция*, М.: Новая Москва, С. 10; И. С. Ляпунов и др.(ред.)(1983) *Гражданская война и военная интервенция в СССР: Энциклопедия*,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С. 396. 배급 체계에 관한 더 상세한 설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조할 것. А. Е. Бадаев (1927) *Десять лет борьбы 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кооперативная работа в Ленинграде 1917-1927*, Л.: Прибой; Mary McAuley(1991), 286-94. ‘장갑(бранированный)’이란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용도가 엄격히 규정된 물품이 확보되었음을 뜻하는 표현이었다.

4)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Т. 5, М.: Госполитиздат, 1957, раздел I, № 219.

세비키 당 지도부는 배급의 종류와 범주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돌격작업”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특혜 배급은 유지되었으며, 배급 범주의 단순화는 그리 쉽게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여기서 내전기에 노동자들이 받았던 배급의 범주를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20년 후반기에는 다섯 가지 범주의 배급이 있었다. 그 다섯 가지는 “유해작업” 배급(“Г” 또는 “ВГЦ”), “돌격작업” 배급(“У”), 표준 배급(“А”), 국영기업 사무원 배급(“Б”), 기타 노동자 배급(“В”)이었다. 유해작업 배급은 아주 심한 중노동이나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주어졌다. 예를 들어, 용광로 작업장의 노동자와 담배공장 노동자들이 이 범주의 배급을 받았다. 식량 공급 사정의 변동에 따라 양이 들쭉날쭉하기는 했지만, 대개 유해작업 배급의 분량은 빵 2푼트(фунт)였다. 당국이 산업 전체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돌격노동 배급은 빵 1.5푼트였고, 표준 배급은 빵 1푼트였다. 기타 노동자 배급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배급의 비율은 언제나 4:3:2:1을 유지했다.⁵⁾

볼셰비키 정부는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수단으로 배급을 이용하는 데 골몰했다. 볼셰비키 고위 지도자들은 생산성 하락의 악순환을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반 노동자들의 배급을 희생해서 돌격노동 공장의 노동자에게 더 많은 배급을 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의 1921년 2월 11일자 회의에서 페트로그라드 지부당 지도자인 알렉산드르 쿠클린(Александр Ку克林)은 “물자가 모자란 탓에 [...] 우리는 단번에 모든 이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생활필수품이 돌격노동 공장에 맨 먼저 배분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⁶⁾ 1920년 3월에 페트로그라드 철도 결절점 협의회에서 한

5) *Протоколы заседаний Большого президиума Петрогубисполкома, шестой созыв, 1920-1921*, Петроград: Петроградский совет, 1921, С. 66;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заседаний петроградского совета, сессия XVI, 1921/02/11*, С. 71; сессия XXI, 1921/05/09, С. 57. “ВГЦ”는 вредно-горячий цех의 약자이다. 푼트는 무게를 재는 러시아의 옛 단위이며, 1푼트는 0.41킬로그램이었다. 따라서 2푼트는 0.82킬로그램이다.

6)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петроградского совета, сессия XVI, 1921/02/11*, С. 74. 볼셰비키당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레프 트로츠키(Лев Троцкий)는 1920년 3월에 열린 제3차 전러시아 노동조합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난한 한, 그리고 우리에게 최소한의 필요를 만족시킬 만한 식량이 없는 한, 우리는 식량을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하게 분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비품을 주요 노동 부문에, 가장 중요한 기업체에 보낼 것입니다.” *Третий Всероссийский съезд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대의원이 평등한 배급을 요구하자, 협의회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다. “배급의 평등화는 나라 전체의 경제가 되살아난 뒤에, 즉 식료품의 양이 소비자의 수에 맞춰졌을 때 실행될 것입니다.”⁷⁾ 안드레예프(A. Андреев)라는 활동가는 식량과 소비품이 모자라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물자를 지급하는 정책은 “‘정의’의 형태가 아니라 기동(機動) 체계가 되었다”고 주장했다.⁸⁾

3. ‘배급은 평등해야 한다!': 배급의 불평등과 노동자의 반응

산업체의 중요도와 직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배급에 차등을 두고 생산성과 배급 범주를 연계하는 당국의 정책은 많은 노동자들의 반감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노동자들은 처음부터 배급 체계에, 특히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의 배급을 특정 산업체에만 할당하는 정책에 매우 심한 불만을 품었다. 노동자들은 저마다 다 자기들이 사회에 유용한 노동을 하니 더 높은 범주의 배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전 초기에는 불평불만이 대개 낮은 배급 범주에 지정된 노동자들에게서 터져 나왔다. 1919년 2월에 열린 인쇄노동자 협의회에서 제3국영인쇄소 대표인 플라토노프(Платонов)는 “우리는 다른 모든 노동자처럼 먹고 싶다”는 소규모 인쇄소 노동자의 불평을 전했다.⁹⁾ 1919년 9월에 열린 제1차 페트로그라드 노동조합 대회에서 의료 노동자 조합 지도자인 올샨스키(Н. Ф. Ольшанский)는 노동배급 범주가 도입되면서 소요가 일어났다고 설명한 뒤 “우리 노동조합 대표들은 대폭풍을 견뎌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예를 들면, 의료 기관의 화부(火夫)는 노동배급을 받지 못했지만 선반공은 노동배급을 받았습니다.”라면서 배급 체계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한 뒤 이렇게 한탄했다. “이 문제가 노동자 대중을 휘젓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¹⁰⁾

союзов 6-13 апреля 1920 года: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Часть I: Пленумы, М.: Госиздат, 1921, С. 90.

7)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 1920/03/23, № 63, С. 2.

8) *Вестник труда*, 1920, № 1, С. 7.

9) Цент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Ф. 4804, Оп. 3, Д. 18, Л. 24об(이후로는 ЦГА СПб.로 약칭).

10) *Первая Петроградская губерн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фсоюзов и фабрично-заводских*

배급 체계에 대한 불평불만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다. 1920년 4월에 페트로그라드에서 열린 비(非)정당 공장노동자 대표자 대회에서 알렉산드로프(Александров) 공장 대표로 라리오노프(Ларионов)라는 노동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만약 푸틸로프(Путилов) 공장 노동자에게 특별 배급이 주어 진다면, 알렉산드로프 공장의 노동자와 기타 공장의 노동자에게도 똑같은 배급 이 주어져야만 합니다.”¹¹⁾ 라리오노프는 1921년 4월에 열린 페트로그라드 소비 에트의 한 회기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물품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모두를 위 해서 [...] 지급되어야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입니다.”¹²⁾ 전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920년 5월 말에 노동배급을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는데, 사 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노동배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당국의 답변을 두 달 뒤에 들었다. 전표 공장의 노동자들은 이렇게 항의했다. “우리는 사기업주를 위해 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페트로코무나(Петрокоммуна)를 위해 일하므로 소비에트 정부를, 즉 인민을 위해서도 일하는 셈입니다.”¹³⁾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배급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고 지급이 독단적이라는 사 실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부채질했다. 츠베타코프(Цветков)라는 활동가는 이러 한 분노를 1920년에 열린 제3차 페트로그라드 노동조합 대회에서 이렇게 묘사 했다.

우리는 합의를 보아서 어느 누구도 불만을 품지 않도록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는 평등한 배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 우 리는 동일한 공장에서, 그리고 작업 조건이 동일하게 유해한 산업에서 어떤 노동자는 표준 배급을 받고 어떤 노동자는 돌격노동 배급을 받고 또 어떤 노동자는 유해작업 배급을 받습니다. 한 양철직공이 돌격노동 배급을 받습 니다만, 갑자기 돌격노동 배급이 그에게서 회수되고 표준 배급이 주어집니 다. 그 양철직공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나도 먹고 싶다오.”¹⁴⁾

комитетов, 11-13 сентября 1919 г.: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Л., 1930, С. 69-70.

- 11) ЦГА СПб., Ф. 6276, Оп. 6, Д. 70, Л. 63. ‘비정당(беспартийный)’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월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반(反)혁명을 지지하지 않지 만 볼셰비키 당원은 아니라는 뜻을 지닌 표현이었다.
- 12)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петроградского совета, сессия XX, 1921/04/23, С. 29.*
- 13) Цент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историко-полит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Ф. 435, Оп. 1, Д. 1 8, Л. 29, 84(이후로는 ЦГАИПД СПб.로 약칭). 페트로코무나는 페트로그라드 시 소비자 연합코뮌의 약어이다. 이 기구에 관해서는 А. Е. Бадаев(1928) *Ленинградская кооперация за 10 лет, Т. 1, Л.: ЛСПО를 볼 것.*

더군다나, 아래에서 설명되겠지만, 설령 높은 등급의 배급을 받을 자격을 얻었을지라도 규정된 분량의 배급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반혁명 세력을 후원하는 자본주의 열강이 혁명 러시아를 봉쇄한데다가 내전 탓에 혁명 러시아의 산업 기반이 허물어지면서 페트로그라드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기본 생계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품목이 만성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만성적인 물자 부족 사태의 와중에서 특정한 한 공장의 공급 사정이 그 공장의 경영진과 당국의 물자공급 기관 사이에 긴밀한 사적 연계가 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1918년 10월에 열린 인민경제최고회의(ВСНХ) 상임위원단 회의에서 바실리예프(Васильев)는 이렇게 말했다. “한 기업체에는 물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체에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그 까닭은 ‘연줄에 따라’ 이 공장이, 또 저 공장이 특혜를 받기 때문이 아닐까요?”¹⁵⁾ 군의료장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920년 7월 13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식량 위기에 관해 토론했다. 노동자 위원회는 식량 지급을 개선해 달라고 반년 동안 청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의료장비 공장은 붉은 군대를 위한 산업체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최고의 중요성을 지닌 특별 기업체로 인식되는데도 식량 지급을 해주겠다는 약속만 남발되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 공장 노동자들은 “식료품 배분에서 공장 사이에 설명할 길 없는 차등이 있다”고, 그리고 “배급의 수량은 공장과 이런 저런 기관의 연줄에 달려있으며 이런 점 탓에 우리의 노력은 늘 실패했다”고 불평했다.¹⁶⁾

이런 상황 속에서 1920년 전반기부터 “배분이 평등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다. 1920년 2월 8일에 열린 운송노동자 협의회는 노동자들이 받는 배급이 평등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¹⁷⁾ 1920년 3월에 열린 철도원 협의회에서도 “초과근무를 하는 노동자와 화물열차의 하역과 수리를 맡은 노동자를 예외로 하고 모든 철도원의 식량 배급의 기준량이 평등해져야 한다”는 열망이 표출되었다.¹⁸⁾ 1920년 5월 9일에 열린 페트로그

14) Третий петроградский губернский съезд профсоюзов, 13-16 февраль 1921 г.: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Петроград, 1921, С. 15. 노동배급을 받을 자격을 얻지 못한 노동자의 불만에 관해서는 추가로 *Петроградская правда*, 1920/07/28, № 165, С. 1; *Красная газета*, 1920/07/28, № 165, С. 4을 볼 것.

15) *Народное хозяйство*, 1919, № 1-2, С. 37.

16) ЦГА СПб., Ф. 4709, Оп. 4, Д. 76, Л. 31, 31об.

17) *Красная газета*, 1920/02/10, № 30, С. 3.

라드 인쇄노동자 협의회에서는 미하일로프(Михаилов)라는 노동자가 “우리 노동자 모두의 식량 배급을 평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¹⁹⁾

우대 배급에서 배제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심리는 제3차 페트로그라드 노동조합 대회에서 제42직물공장 대표로 참석한 카라한(Карахан)이라는 한 늙은 여성 노동자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 공장은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바쁩니다. 어떤 이는 경비를 서고 다른 이는 구내 마당에서 일을 합니다. [...] 그러나 페트로코무나는 우리의 기분을 아주 심하게 해쳤습니다. 페트로코무나는 우리 노동자를 빵 반 폰트 수령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만약 빵이 없거나 아주 조금밖에 있지 않다면, 있는 것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 평등은 없습니다. 페트로코무나는 우리를 무척 신경질 나게 해왔습니다. 몇몇 사람은 나한테 거기로, 즉 페트로코무나로 가보라고 조언했습니다. [...] 무힌(Мухин) 동무는 “할머니, 우리에게겐 생산물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무덤에 드러누워야 합니까? 우리는 돌격노동자와 유해작업 노동자처럼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쪼록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만 들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²⁰⁾

1921년 봄에 볼셰비키 정권이 증대한 위기를 맞이할 무렵에 노동자들은 식량 배급과 필수품의 차등 분배를 폐지해야 한다고 사실상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다. 1921년 4월 중순에 소집된 페트로그라드 비정당 공장노동자 대표 협의회에 파견된 대의원들도 배급의 평등화를 요구하는 데 열성적이였다.²¹⁾ 오부호프(Обухов) 철강주물 공장에서 파견된 슬렙초프(Слепшов)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우리는 최근에 겪은 반(半)기근에서 살아남았으며, 배급의 불평등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는 많이 받았고, 어떤 이는 아무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동자와 직원들을 위한, 모두를 위한 공통의 단일 국가배급을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А”, “Б”, “В”, “Г” 같은 알파벳이 아니라 단일한 국가배급입니다.²²⁾

18)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 1920/03/16, № 58, С. 3.

19) ЦГА СПб., Ф. 4804, Оп. 4, Д. 11, Л. 41.

20) *Третий петроградский губернский съезд профсоюзов*, С. 46. 카라한은 마흔 여덟 해 동안 일을 한 나이든 여성 노동자였다. *Маховик*, 1921/02/16, № 22, С. 2-3.

21) *Красная газета*, 1921/04/01, № 21, С. 2.

이렇듯 배급의 평등화는 노동계급의 일반적이면서도 절박한 요구 사항이 되었다.

평등에 집착하는 노동자들의 심리는 상부 조직으로부터 수량이 한정된 물품이 지급되어 특정한 한 공장의 모든 노동자가 모두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제비뽑기라는 수단으로 그 물품을 분배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당국은 생산성이 뛰어난 작업장이나 개개 노동자에게만 물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그 지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수량이 한정된 물품을 많은 노동자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매우 많은 산업체에서 제비뽑기가 선호되었다.²³⁾ 노동자들은 상호 반목과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나 다 수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택했던 것이다. 노동조합과 볼셰비키 당국은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제비뽑기 관행을 막으려고 애를 썼다. 1920년 12월 11일에 크루그(Круг) 공장 소속 볼셰비키 당원 활동가들은 장화의 배분을 정하기 위해 “몇몇 노동자 동무가 제비뽑기를 하자고 제안한다.”는 보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²⁴⁾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모자란 물품들이 그 물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그 제비뽑기 관행을 금지하려고 시도했다. 1921년 4월 1일에 열린 인쇄 공업부문 공장위원회 간사 회의에서 한 노동조합 지도자는 공장위원회에 이렇게 경고했다. “노동조합 이사회 결의안에 따라서, 현장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기초 필수품목을 분배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되어야 합니다. 제비뽑기를 허용하는 공장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율위원회에 회부될 것입니다.”²⁵⁾ 이런 경고는 역으로 제비뽑기 관행이 만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며, 물자 지급을 생산성과 연계하려는 당국의 정책이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

22) Маховик, 1921/04/14, № 69, С. 2. 1921년 3월 1일에 열린 발트(Балт)해 함대 제 1·제2 전대(戰隊) 승조원 전체집회에서 “노동하는 [...] 모든 사람의 배급을 평등화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Кронштадт 1921: Документы о событиях в Кронштадте весной 1921 г.*, М.: Демократия, 1997, С. 50, 64; Alexander Berkman(1989) *The Bolshevik Myth: Diary 1920-1922*, London: Pluto Press, pp. 297-98.

23) ЦГАИПД СПб., Ф. 435, Оп. 2, Д. 27, Л. 19; Д. 28, Л. 6; ЦГА СПб., Ф. 6261, Оп. 6, Д. 61, Л. 32; *Красная газета*, 1921/01/29, № 19, С. 4; Маховик, 1921/02/18, № 24, С. 4.

24) ЦГАИПД СПб., Ф. 991, Оп. 1, Д. 1, Л. 17.

25) ЦГА СПб., Ф. 4804, Оп. 5, Д. 17, Л. 22.

4. 배급과 사회보장, 그리고 사회 정의

배급과 필수품 분배에서 평등을 선호하는 페트로그라드 노동자들의 정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첫째 요인으로는 강한 평등주의 정서가 내전 시기에도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노동자들의 마음속에서 공산주의는 평등과 강력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페트로그라드의 볼셰비키 최고 지도자 그리고리 지노비예프(Григорий Зиновьев)는 1920년 9월에 열린 제9차 전 러시아 공산당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는 페트로그라드의 동무들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 지금 가장 사소한 불평등마저도 노동자들의 귀에는 거슬립니다.”²⁶⁾ 물론, 공산주의와 평등의 연계는 볼셰비키가 늘 옹호해왔던 메시지였다. 1918년 10월 초순에 열린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회기에서 한 발언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기본 과제는 진정한 근로자들인 모든 이를 위해 경제적 평등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²⁷⁾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기관지 『크라스나야 가제타(Красная газета)』의 지면에서 노련한 노동운동 지도자인 칩페로비치(Г. В. Цыперович)는 볼셰비키가 아닌 보통 노동자들에게 공산주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등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²⁸⁾

둘째 요인으로는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배급 범주로 분류되었을 때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전횡이 그들의 사회정의 감정을 건드려서 분노를 자아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른 작업장이나 공장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세 노동자가 각각 서로 다른 세 범주의 배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케르팅(Кертинг) 공장의 공장위원회 위원 로보프(А. Лобов)는 돌격작업 공장에서 힘들지 않은 일을 하는 노동자가 돌격작업 공장이 아닌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

26) *Девят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КП(б), сентябрь 1920 года: Протоколы*, М.: Госполитиздат, 1972, С. 152. 완전한 평등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열망에 관해서는 *Третий петроградский губернский съезд профсоюзов*, С. 15을 볼 것. 1922년 봄에 열린 제11차 전러시아 공산당 대회에서 전러시아 노동조합 평의회 의장 미하일 톰스키(Михаил Томский)는 노동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평등을 이루겠다는 열망”이 있다고 말했다. *Одиннадцатый съезд РКП(б), март-апрель 1922 года: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М., 1961, С. 279.

27) *Петроградская правда*, 1918/10/06, № 218, С. 2.

28) *Красная газета*, 1919/10/15, № 233, С. 3.

는 노동자보다 더 높은 등급의 배급을 받는 부조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²⁹⁾ 셋째 요인은 배급을 보는 노동자들의 시각과 연관되어 있다. 노동자들은 배급을 자기들이 하는 노동에 주어지는 보수라기보다는 극단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조건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주는 것이 1차적 목적인 사회보장으로 여겼기 때문에 배급을 노동생산성과 연동해서 줄이고 늘리려는 시도를 좋아하지 않았다.³⁰⁾ 노동자들의 눈에 노동생산성이 높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배급을 지급하려는 정부 당국의 시도는 모든 시민에게 기본 생활필수품을 제공해야 할 정부의 근본 의무를 소홀히 하는 태만 행위로 비춰졌다. 1921년 12월 21일에 로젠크란츠(Розенкранц) 공장에서 열린 노동자 전체집회에서 금속 공업부문 노동조합 대표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식료품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보장책이었다”고 말했다.³¹⁾

배급을 생산성과 연계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노동자들이 품은 불만은 소속 노동자들이 높은 등급의 배급을 받는 특혜를 누리는 공장의 생산성이 실제로는 나머지 공장의 생산성보다 높지 않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한결 더 심해졌다. 돌격노동 공장으로 선정되어 배급 면에서 우대를 받는 산업체들이 생산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³²⁾ 운송 부문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돌격노동 공장의 경우에 1920년 후반기에 평균 14개 공장이 생산 프로그램의 50퍼센트를 조금 웃도는 수준의 실적을 올리는 데 그쳤다.³³⁾ 푸틸로프 공장 노동자들은 특권적인 배급을 누렸지만, 이런 특해도 “노동자 1명 당 노동생산성의 하락이라는 음울한 현상”을 막지는 못 했다.³⁴⁾ 페트로그라드 금속 노동조합에 보낸 1921년 2월 24일자 보고서에서 로젠크란츠 공장의 공장위원회는 1920년 7월부터 “노동력과 물자를 충분한 정도로 제공받았는데도 생산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³⁵⁾ 철도원의 물질적 상황이 다

29) Маховик, 1921/02/24, № 29, С. 2.

30) Станислав Струмилин(1923), С. 19.

31) ЦГА СПб., Ф. 4591, Оп. 5, Д. 12, Л. 60.

32) Материалы к 10-му съезду РКП по вопрос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М.: Госиздат, 1921, С. 17; Петроградская правда, 1920/12/17, № 258, С. 3. 또한 Экономическая жизнь, 1921/01/27, № 17, С. 2; 1921/01/29, № 19, С. 2을 참조할 것.

33)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 1920/12/29, № 293, С. 3.

34) Бюллетени отдела статистики труда при петроградском отделе труда и совет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юзов, 1920, № 12, С. 4.

른 산업 부문 노동자들의 상황보다 훨씬 더 나았는데도, 철도 부문의 노동 생산성은 언제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³⁵⁾ 페트로그라드 볼셰비키 지부당 기관지 『페트로그라드 프라브다(Петроградская правда)』의 지면에서 한 기고자는 대형 인쇄소가 식량 배급 면에서 특권을 누리면서도 대형 인쇄소의 노동 생산성이 특혜 배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소형 인쇄소의 노동 생산성보다 더 높지 않아서 인쇄 노동자들이 지닌 정의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배급의 평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배급의 불평등이 사회정의에 위반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⁷⁾ 이런 점을 고려하면, “모든 범주의 노동자와 직원에게 평등한 배급이 주어져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균등화의 열망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이루려는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무척 잦았다”는 러시아의 역사학자 알렉산드르 키셀료프(Александр Киселев)의 서술은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³⁸⁾

이런 정서를 이상화하거나 낭만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1920년 이전에는 노동자들이 배급의 평등을 요구하기보다는 더 높은 배급 범주로 들어가서 처지를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일찍이 1919년 3월에 푸틸로프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이면서 “다른 시민을 희생하지 않고서” 자기들의 배급을 늘려달라는 요구사항을 정부 당국에 내놓았던 적이 있다.³⁹⁾ 그리고 1921년 2월 10일에 열린 발티스키 공장 노동자 전체집회에서 아키모프(Акимов)는 페트로코무나가 “한 그룹을 희생해서 다른 한 그룹의 배급을 늘립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노동자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했다.⁴⁰⁾ 이 발언을 반드시 액면

35) ЦГА СПб., Ф. 4591, Оп. 5, Д. 57, Л. 78. 1920년 후반기에 로젠크란츠 공장은 군사 프로그램의 24퍼센트, 운송 프로그램의 13.5퍼센트를 이행했다. ГАРФ, Ф. 7952, Оп. 4, Д. 142, Л. 37, 38.

36)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 1919/08/30, № 27, С. 2.

37) *Петроградская правда*, 1919/04/13, № 82, С. 4.

38) Александр Киселев(1991) *Профсоюзы и Совет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Дискуссии 1917-1920 гг.*, М.: Прометей, С. 141.

39)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Ф. 17, Оп. 84, Д. 43, Л. 20; К. Н. Яковлева(1919) “Забастовки фабрично-заводских рабочих г. Петрограда за I четверть 1919 г.,” *Материалы по статистике труда*, № 5; А. А. Анишев(1925)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1917-1920 гг.*, Л.: Госиздат, С. 185.

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그런 취지의 발언은 노동자들이 제 뱃속만 채우려 드는 이기주의자라는 정부 측의 비난을 받아넘기려는 노력의 일환이자 일부일 수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더 높은 등급의 배급 범주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그런 식의 비난을 자주 가했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서는 평등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더욱이, 평등화 요구가 사회정의에 관련된 정서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요구는 또한 노동계급 안에 존재하는 여러 노동자 그룹이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지닌 상황에서 특정한 노동자 그룹의 상황 개선을 추구하는 행위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더 나아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실용적 인식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노동계급으로서는 한 노동자 그룹을 다른 한 노동자 그룹과 맞서도록 만드는 정부의 정책에 따르기보다는 그 정책에 맞서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유리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평등한 배급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다른 사회 부문의 공감을 받드시 얻지는 못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다.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면, 공장 노동자들은 물질적 조건의 관점에서 어쨌든 다른 범주의 시민들보다 대개는 더 나은 형편에 있었다. 『크라스나야 가제타』의 지면에서 한 붉은 군대 병사는 병사들의 배급이 노동자들의 배급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지적했다.⁴¹⁾ 페트로그라드 노동조합 기관지 『마호빅(Маховик)』의 지면에서 한 수상(水上)경찰대원은 자기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노동시간이 길고 배급이 형편없다고 불평하면서 “노동자들은 상여금을 받지만 우리는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⁴²⁾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의 1921년 3월 4일자 회기에서 바라놉스키(Барановский) 공장 대표로 온 노동자는 식량과 의복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기 공장에서 태업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곤체프(Гонцев)는 농민은 종종 하루에 18시간 일하지만 바라놉스키 공장 노동자는 일일 노동시간이 8시간이 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발티스키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

40) ЦГА СПб., Ф. 4591, Оп. 5, Д. 13, Л. 28.

41) *Красная газета*, 1921/04/20, № 87, С. 4.

42) *Маховик*, 1921/04/09, № 64, С. 2. 볼셰비키 당원이었던 역사가 로즈코프(Н. А. Рожков)는 레닌에게 보낸 1919년 1월 11일자 편지에서 “페트로그라드의 인구 절반이 굶어죽을 판입니다”라고 썼다. *В. И. Ленин: Неизвестные документы 1891-1922*, М.: РОССПЭН, 2000, С. 267; Зива Галили, Альберт Ненароков и др.(ред.)(2000) *Меньшевики в 1919-1920 гг.*, М.: РОССПЭН, С. 78.

데, 작업의 노동 강도가 애들 놀이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한 붉은 군대 병사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나는 페트로그라드 노동자가 옷을 제대로 못 입고 굶을 수도 있겠지만, [...] 붉은 군대 병사들은 완전히 헐벗고 빵을 딱 1 폰트 밖에는 받지 못한다고 말해야만 합니다.”⁴³⁾

그렇지만 배급의 평등화를 요구하는 대다수 노동자의 태도는 비교적 진정이었다고 보인다. 아마도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더 높은 등급의 배급을 받는 특혜를 누리는 노동자들이 그 요구를 지지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1921년 2월에 열린 페트로그라드 금속 노동조합 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자에 따르면, 제1국영발전소에서 유해작업 배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자 전체집회에서는 노동자의 평등화에 관한 요구를 제기했다. 그 보고자는 “노동자들이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고는 모든 노동자에게 유해작업 배급이나 돌격노동 배급을 주는 것, 또는 평등한 배급을 확립하는 것의 타당성을 정하자는 제안을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⁴⁴⁾ 그러면서 그 보고자는 푸틸로프 공장 대표인 로바리코프(Ловариков)가 1921년 4월의 페트로그라드 시 공장 대표 협의회에서 배급 평등화 요구를 지지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배급의 폐지를 주장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⁴⁵⁾ 1921년 2월 10일에 열린 페트로그라드 금속 노동조합 회의에서 보로닌(Воронин)이라는 제1국영발전소 노동자 대표가 이렇게 주장했다. “노동자의 배급을 평등화하면 질서가 더 잘 유지되고 모든 반목이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리 작업과 생산이 강화될 것입니다.”⁴⁶⁾

다른 노동자들보다 더 좋은 배급을 받을 자격을 가진 노동자들이 배급의 평등화를 요구하면서 과연 자기가 받을 배급의 삭감을 각오했는지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자기 동지 노동자들을 희생하면서 특혜를 지키려 드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애써 피하려는 열망은 진정한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더욱이, 더 높은 배급을 받을 자격을 가진 노동자들마저도 물자 부족 사태가 워낙 심각한 탓에 실제로는 규정된 분량의 배급을 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1920년에 그런 노동자들이 받은 식료품의 분량은 정량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다.⁴⁷⁾ 이런 면에서 그들은

43)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петроградского совета*, 1921/03/04, сессия XVIII, С. 21, 33, 37-8.

44) ЦГА СПб., Ф. 4591, Оп. 5, Д. 5, Л. 80.

45) ЦГА СПб., Ф. 6276, Оп. 6, Д. 70, Л. 69.

46) ЦГА СПб., Ф. 4591, Оп. 5, Д. 5, Л. 80.

특혜를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곤경에 처해 있었던 셈이다. 1921년 1~3월에 식량공급인민위원부(Наркомпрод)는 모스크바와 페트로그라드에서 식량 공급 목표의 50퍼센트를, 공장에서는 목표의 40퍼센트를 근근이 달성할 수 있었다.⁴⁸⁾ 1921년 5월에 열린 제4차 전 러시아 노동조합 대회에서 한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법에 규정된(законный) 배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⁴⁹⁾

노동자들은 생산성을 올리는 수단으로 불평등을 활용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우려 섞인 반감을 표출했다. 그들은 노동계급 안에 불평등이 조성되면 연대감이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1919년 12월 3일에 열린 직원회의에서 식르킨(Сыркин) 인쇄소 노동자들은 노동배급 문제를 논의한 뒤 이렇게 결의했다.

우리는 딱딱한 산정기준을 이행해서 작업의 난이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한 가족인 노동자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사회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노동계급이라는 근로 가족 안에 등급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등급이 있으면 노동자 사이에 불화와 반목의 씨앗이 뿌려진다.⁵⁰⁾

실제로 배급 체계의 불평등과 독단성이 성실하게 일하려는 노동자들의 의지를 달아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의 1920년 9월 17일자 회기에서 오부호프 공장 대표로 참석한 안톤 골긴(Антон Ф. Гольгин)이라는 노동자는 이렇게 발언했다.

(현재의 제도가) 불화의 씨앗을 뿌려서 아무도 일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동무들에게 식량과 의복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주는 법령을

47) Ефим Гимпельсон(1971)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и материаль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рабочих в 1918-1920 гг.,” *Исторические записки*, Т. 87, С. 69. 제3차 전러시아 노동조합 대회에서 인민경제최고회의 의장 알렉세이 리코프(Алексей Рыков)는 1920년 1월에는 “장갑” 배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노동자의 60퍼센트가, 2월에는 80퍼센트가, 3월에는 50퍼센트가 정량을 지급받았다고 보고했다. *Третий всероссийский съезд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юзов 6-13 апреля 1920 года*, С. 82-3.

48) И. С. Ляпунов и др.(ред.)(1983), 397.

49) *Четвертый всероссийский съезд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юзов, 17-25 мая 1921 г.: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Работ пленума и секций)*, М.: Изд. РИО ВЦСПС, 1922, С. 126.

50) ЦГА СПб., Ф. 4804, Оп. 3, Д. 22, Л. 112.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것을 받고, 다른 사람은 저것을 받습니다. [...] 한 친구는 청어, 갖가지 식료품, 비누 등을 받는데, 나한테는 겨우 밀가루 반 폰트가 주어집니다. 내가 애써 일을 하려 할까요? 집어치우시오! 나는 일하지 않겠습니다.⁵¹⁾

1921년 4월에 열린 페트로그라드 비정당 노동자 협의회에서 이조라(Ижора) 기계 공장 대표로 참석한 코롤로프(Королов)라는 노동자는 “어째서 한 노동자는 상여금과 밀가루 5폰트를 받고 그 노동자 곁에서 나란히 일하는 다른 노동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까?”라고 묻고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한 그 노동자는 기분이 나빠서 작업을 제대로 못하기 마련입니다”라고 말했다.⁵²⁾ 케르팅 공장의 공장위원회 위원 로보프는 ““툭툭대는 소리’가 나오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평등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오를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⁵³⁾ 이렇듯, 생산성을 올리는 수단으로 불평등을 활용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오히려 생산성 하락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온 참담한 실패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배급 분배의 불평등이 내전기 동안 페트로그라드의 산업 부문에서 일어난 파업의 핵심적 원인이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1921년 5월에 열린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의 한 회기에서 한 발언자는 “배급 분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분배가 부정확한 탓에, [...]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소요와 지연이 일어납니다”라고 말했다.⁵⁴⁾ 이런 주장은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배급에 차등을 두어서 생산성을 올리려는 당국의 의도가 역효과를 불러 일으켜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

5. 맺음말

러시아 혁명의 요람이었던 페트로그라드는 내전기에 극심한 경제 위기를

51)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заседаний петроградского совета*, сессия V, 1920/09/17, С. 253(강조는 필자).

52) *Петроградская правда*, 1921/03/13, № 81, С. 1.

53) *Маховик*, 1921/02/24, № 29, С. 2.

54)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петроградского совета*, сессия XXI, 1921/05/09, С. 24-5.

맞아했다. 내전의 혼란과 자본주의 열강의 경제 봉쇄로 말미암아 공업 생산이 붕괴되면서 페트로그라드는 극심한 물자 부족 사태에 시달렸다. 경제 기반이 허물어지면서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물가는 폭등하고 화폐는 가치를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생존하기 위해 배급에 의존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에서 화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고, 이에 반비례해서 식량과 각종 생활필수품의 배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치솟았다.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공업 생산이 유지되어야 하며 생산의 유지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믿은 볼셰비키 당과 정부는 페트로그라드 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배급에 차등을 두는 정책을 도입했다. 즉, 당국은 생산 유지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판정한 산업체나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더 높은 등급의 배급을, 그리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는 양과 질이 떨어지는 배급을 지급했던 것이다. 낡은 체제에서 유지되었던 특권과 불평등을 폐지하고자 일어난 혁명의 결과로 태어난 새로운 체제가 새로운 형태로 특권과 불평등을 되살려낸 셈이다.

이 특권에서 배제된 산업체와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불평등에 당연히 불만을 품었고, 배급의 불평등에 항의했다. 노동자들은 배급 체계의 불합리성과 부조리를 비판하면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배급의 평등화를 요구했다. 또한 노동자들 사이에는 불평등을 혐오하는 정서가 매우 강했고, 따라서 배급의 불평등은 혁명 체제의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더욱이 배급의 불평등은 단순히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볼셰비키 당 지도부와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배급의 불평등을 용인하고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더 높은 등급의 배급을 받는 특혜를 누리는 특정한 산업체나 직종의 생산성이 그런 특혜에서 배제된 산업체와 직종의 생산성보다 높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런 부조리한 현상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당국이 고집하는 배급의 불평등이 사회정의에 어긋난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배급의 불평등에 분노하고 배급의 평등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행동은 원초적인 균등화 정서의 발로가 아니라 노동자 나름의 사회정의 관념의 소산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높은 등급의 배급을 받을 자격을 가진 노동자들도 배급의 평등화를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얼핏 보기에 이타적이고 이상적인 이런 모습은 단순히 정의감이 발휘된 결과만은 아니었다. 특정한 노동자 그룹은 설령 높은 등급의 배급을 받을 자격을 얻었을지라도 물자 부족이 워낙 심한 탓에 실제로는 규정된 분량의 배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배급 평등화 요구는 상대적인 배급상의 특권을 누리는 노동자 그룹이 이기주의자라는 비난을 피하면서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성취하는 일종의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배급을 생산성과 연계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배급의 불평등을 용인하고 유지한 볼셰비키 지도부와 정부의 정책은 현실에서는 노동자들 사이에 불화와 반목을 조장하고 특권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의 생산 의욕을 꺾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배급 체계의 부조리와 불합리성이 노동자들의 사회정의 관념과 충돌하며 분란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사실은 당국과 볼셰비키 지도부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 제3차 페트로그라드 노동조합 대회에서 페트로그라드 노동조합의 고위 지도자 나움 안첼로비치(Наум Анцелович)는 이렇게 말했다.

재를 치우는 노동자는 이 작업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유해작업 배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장작을 패는 노동자는 손에 동상이 걸리고 과로할지라도 유해작업 배급을 받지 못합니다. 노동자는 이런 상황에서 정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 우리는 두 가지 요인을 [...] 고려해야만 합니다. 첫째, 노동자에게 식량을 지급하는 돌격작업 방식은 산업에 필요합니다. [...] 둘째는 첫째 요인 못지않게 중요한데, 노동자의 심리가 고려되어야만 합니다.⁵⁵⁾

안첼로비치가 깨닫지 못한 사실은 그 두 가지 요인이 상충한다는 점이었다. 정부가 고집한 “식량 지급의 돌격노동 방식”은 “노동자의 심리”와 정면충돌했다. 배급의 불평등을 전제하는 돌격작업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불평등을 혐오하고 배급의 불평등을 사회정의에 어긋난다고 여기는 노동자의 심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안첼로비치의 주장에는 사회주의의 전제조건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취되는 고도의 생산력이라는 인식과 평등이 사회주의의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이 혼재되어 있었다. 볼셰비키가 직면한 비극은 적어도 내전기에는 생산력과 평등이라는 두 요소가 일종의 이율배반적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다.

55) Третий петроградский губернский съезд профсоюзов, С. 11.

참고문헌

= 1차 사료 =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РГАСПИ),
Ф. 17

Цент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историко-полит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ЦГАИПД СПб.), Ф. 435; ф. 991

Цент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ЦГА СПб.), Ф.
4591; ф. 4709; ф. 4804; ф. 6261; ф. 6276

*Бюллетени отдела статистики труда при петроградском отделе труда
и совет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юзов*

Вестник труд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

Красная газета

Маховик

Народное хозяйство

Петроградская правда

Экономическая жизнь

В. И. Ленин: Неизвестные документы 1891-1922, М.: РОССПЭН, 2000.

Девят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КП(б), сентябрь 1920 года: Протоколы, М.:
Госполитиздат, 1972.

Декрет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Т. 5, М.: Госполитиздат, 1957.

Кронштадт 1921: Документы о событиях в Кронштадте весной 1921 г.,
М.: Демократия, 1997.

Материалы к 10-му съезду РКП по вопрос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М.: Госиздат, 1921.

*Одиннадцатый съезд РКП(б), март-апрель 1922 года: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М.: Госполитиздат, 1961.

*Первая Петроградская губерн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фсоюзов и фабрично-заводских
комитетов, 11-13 сентября 1919 г.: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Л., 1930.

- Протоколы заседаний Большого президиума Петрогубисполкома, шестой созыв, 1920-1921, Петроград: Петроградский совет, 1921.*
-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заседаний петроградского совета.*
- Третий Всероссийский съезд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юзов 6-13 апреля 1920 года: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Часть I: Пленумы, М.: Госиздат, 1921.*
- Третий петроградский губернский съезд профсоюзов, 13-16 февраль 1921 г.: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Петроград: 1921.*
- Четвертый всероссийский съезд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юзов, 17-25 мая 1921 г.: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ет, (Работ пленума и секций), М.: Изд. РИО ВЦСПС, 1922.*
- Яковлева, К. Н.(сост.)(1923) *Положение труда в Петроградской губернии за 1918-1923 гг.: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атлас, пояснительный текст и цифровые материалы*, Петроград: Вопросы труда.

= 2차 자료 =

- Анишев, А. А.(1925)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1917-1920 гг.*, Л.: Госиздат.
- Бадаев, А. Е.(1927) *Десять лет борьбы 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кооперативная работа в Ленинграде 1917-1927*, Л.: Прибой.
- _____ (1928) *Ленинградская кооперация за 10 лет*, Т. 1, Л.: ЛСПО.
- Вышинский, А. Я.(1922) *Вопросы распределения и революция*, М.: Новая Москва.
- Галили, Зива, Ненароков, Альберт П. и др.(ред.)(2000) *Меньшевики в 1919-1920 гг.*, М.: РОССПЭН.
- Гимпельсон, Ефим Г.(1971)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и материаль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рабочих в 1918-1920 гг.,” *Исторические записки*, Т. 87, С. 57-90.
- Киселев, Александр Ф.(1991) *Профсоюзы и Совет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Дискуссии 1917-1920 гг.*, М.: Прометей.
- Ляпунов, И. С. и др.(ред.)(1983) *Гражданская война и военная интервенция в СССР: Энциклопедия*,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 Струмилин, Станислав Г.(1923)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и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труда в рус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1913-1922 гг.*, М.: Вопросы труда.

- Яковлева, К. Н.(1919) “Забастовки фабрично-заводских рабочих г. Петрограда за I четверть 1919 г.,” *Материалы по статистике труда*, № 5.
- Berkman, Alexander(1989) *The Bolshevik Myth: Diary 1920-1922*, London: Pluto Press.
- McAuley, Mary(1989) “Bread without the Bourgeoisie,” in Diane P. Koenker, William R. Rosenberg and Ronald G. Suny (eds.) *Party, State, and Society in the Russian Civil War: Explorations in Social History*,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pp. 158-79.
- _____ (1991) *Bread and Justice: State and Society in Revolutionary Petrograd 1917-1922*, Oxford: Clarendon Press.

Abstract**Rations, Labour and Social Justice:
The Workers and the Ration System in Petrograd
in the Era of the Russian Civil War, 1918-1921****Lyu, Hansu**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policies relating to rations introduced by the Bolshevik regime and workers' reaction to them in Petrograd during the Russian Civil War. The economic dislocation occurred in the Revolutionary Russia due to the fierce civil war and the ensuing disorder. The situation was worsened by the blockade imposed by the capitalist powers. The workers in Petrograd underwent the extreme shortage of food and other necessities. The soaring prices of goods led to a continued fall of the value in money. As a result, most workers in Petrograd began to receive ration instead of money as wages. The ration of food and other necessities given out to workers was far from being equal. The Bolsheviks government took a line to give out the better rations to those workers who worked in the industrial enterprises which were thought to be vital for the maintenance of economy and the war effort. In other words, only a small portion of workers was entitled to the privileged rations. Such a ration policy caused the serious indignation over the inequality amongst the mass of workers. They demanded that they should be entitled to the higher category of ration on the ground that their labour was also useful to the society. And they went so far as to raise their voice for the equalisation of r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economy was completely dislocated, in their eye, the ration was not so much wages as social security. Moreover, the labour productivity of those industrial enterprises entitled to the privileged ration was not higher than that of those plants and factories which did not enjoy such a privilege. Such a situation led the workers to consider the policy of ration taken by the authorities as a sort of the complete denial of social justice.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2. 10. 25
논문심사일:	2012. 11. 1 ~ 11. 28
심사완료일:	2012. 11. 30